

淸國의 干涉政策과 高宗의 秘密外交

李命守
政治外交學科

〈要 約〉

이 논문은 淸國의 朝·美 修好斡旋과 高宗의 秘密外交의 과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李鴻章의 '備我抗日'策, 開化堂의 자주적 외교활동 및 開化僧 李東仁의 '聯英防露'構想, 그리고 李東仁의 피살과 事大派의 修好主導權쟁취에 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때 美國의 對 朝鮮修好條約이 일본의 팽창주의,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견제하는 淸國에 의해 주선되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China's Intermediation Policy for Korea-U.S. Amity and King Kojong's Secret Diplomacy.

Lee Myung-soo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dure and major content of China's intermediation for Korea-U.S. amity and King Kojong's secret diplomacy. The analysis includes Li Hung-chang's policy of protecting self Against Japan, autonomous diplomatic activities of Korean modernist group, a design of combining with Britain for a defense against Russia motivated by Lee Dong-In, a modernist group's take-over of diplomatic initiative.

In general, this paper shows that friendship treaty between Korea and U.S. is the result of China's active assistance to Korea against Japanese expansionism and Russia's southward policy.

I. 序 論

朝鮮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권력정치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日本의 강압에 의한 江華島條約締結(1876) 이래 부터이다. 그러나 朝鮮이 國際社會의 일원이 되었다 함은, 그동안 국내의 학자들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의 하나가 일본에 의한 開國이래 다른 西歐列強들과의 通商條約締結 과정에 나타난 朝鮮의 外交가 自主的이었는가 아니면 제 3국의 강압에 의한 他律的인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朝鮮後期の 外交政策을 살펴보면, 國內的으로 아직 근대적 의미의 國際事務를 추진하고 처리할 만한 國際法知識과 事務能力을 구비한 인재가 不在한 상황에서 外交 또한 종래의 事大交隣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독일인 외교고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의 來朝는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그는 1882년에 발생한 壬午軍亂 이후 새로이 제기되는 국가간의 外交事務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淸의 直隸省總督이자 北洋大臣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겸하고 있던 이홍장의 강력한 권고로 朝鮮政府의 외교고문으로 來朝하였다. 그와함께 국왕 高宗의 신임을 받고 있던 國內開化堂 인사들에 의하여 西歐列強과의 條約締結을 목표로 多邊外交(Multilateral Diplomacy)를 추진하여 청나라의 속국적 지위에서 벗어나고 독립과 자주 그리고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한 일련의 노력이 壬午軍亂 이후 전개된 朝鮮外交의 주된 방향이 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복잡다단한 조류속에서 표류하는 듯한 朝鮮말기의 외교는 보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당시의 외교가 자주적이었던가 타율적이었던가에 대한 논의가 부단히 제기되어 왔다.

본문의 試論的 見解는, 당시의 외교가 완전히 자주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학설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또한 전적으로 타율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시각에도 물론 동의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국제정세의 조류에서 朝鮮政府가 단행한 몇 가지 시도에서 자주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조치들이 수립 전개되었으나,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번히 列強의 간섭과 武力的 艦砲外交(Gunboat Diplomacy)에 의해 좌절되고 실패로 끝난 결과를 두고 볼 때 전적으로 타율적이었다고 단정하는 학설은 수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高宗皇帝가 파견한 密使 李東仁의 활약을 들 수 있다. 李東仁은 승려의 신분으로 金玉均, 朴泳孝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開化堂의 政治的 理念에 동조하여 그들의 후원으로 日本에 수차 密派되어 그곳의 政界要人 知識人 文化界人士들과 폭넓은 접촉을 가지고 세계조류의 변화를 보는 안목을 가졌다. 李東仁은 장차 예상되는 朝鮮과 英國의 通商條約 체결을 목적으로 東京에서 英國外交官들과 접촉하였는데, 이는 朝鮮에 대한 전통적 종주국임을 자처하던 淸國의 알선이나 개입을 배제하고 高宗의 특사자격으로 직접 英國人과 접촉하였다는 사실에서 自主的 外交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李東仁이 구상한 '英國과 동맹하여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이른바 '聯英防露' 外交政策은 開港 이후 朝鮮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自主外交路線의 일환이었으나, 그후 事大 開化 兩堂간의 修好主導權 쟁탈로 빚어진 李東仁의 피살은 自主外交노선의 단절을 가져오게 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事件이라 하겠다.

그 후 자주외교노선은 뮐렌도르프에 의해 재시도되었으나, 부임초기에는 자기의 후견인 李鴻章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고, 그가 진정으로 朝鮮의 國祿을 받는 고종정부의 고문으

로서 朝鮮을 위한 외교노선을 추진하다 제 1차 朝露密約 事件으로 결국 외교고문직에서 물러나는데, 이는 자주외교가 실패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된다. 한편 淸은 極東의 신흥세력으로써 美國이 활동에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朝鮮에서 日本과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견제할 세력으로 지목하여 그들의 전통적 '以夷制夷'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 본문은 淸의 對朝鮮政策이 美國을 朝鮮問題에 끌어들이고자 한 과정과 그것의 구체적인 交涉내용, 조선정부의 독자적인 對英國접근외교와 李東仁의 활약, 修好主導權을 둘러싼 國內政治勢力간의 갈등 및 自由外交路線의 좌절 등, 당시 朝鮮의 외교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의 연계에 초점을 두어 再照明해 보고자 한다.

II. 李鴻章의 朝·美通商政策과 그 意圖

美國은 1776年 7月 4日 獨立宣言 후 極東에서 西歐勢力和 協助하여¹⁾ 朝鮮開國을 構想하였는데 이러한 美國의 外交政策은 1866年 8月 朝鮮에서 發生한 셔어먼號(General Sherman) 事件을 契機로 自國의 難破船員의 生命과 財產權保護를 骨子로²⁾ 한 通商內容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歐美商人들의 亂暴한 交易交涉態도와 야만적인 大院君生父 南延君墓所 盜掘行爲는 朝鮮과의 通商條約交涉에 致命的인 惡影響을 끼쳤다.³⁾ 그러므로 1871年 5月 22日 駐北京美國公使 로우(Fredrick Low)와 로저스(John Rodgers)提督一行이 試圖한 평화적通商 交涉提議⁴⁾는 大院君政府에 의해 단호히 拒絶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美國의 朝鮮 開國遠征이 開始되기 전 朝鮮開國協商의 任務를 맡은 로우公使는 對朝鮮接觸에 앞서 國務長官 피시(Hamilton Fish)로부터 “朝·淸兩國의 政治的關係를 고려하여 淸國의 修好斡旋을 重視하라”⁵⁾는 訓令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淸廷의 總理各國事務衙門에다 協助를 要請하였다. 그러나 그는 接觸過程에서 淸國은 朝鮮의 自主의 外交權을 認定하여 朝鮮內政에 干涉하지 않는다는 『不干涉政策』을 淸國政府로부터 確認받았다.⁶⁾

淸國의 對朝不干涉政策은 美國의 朝鮮開國 遠征失敗로 再確認되었으며 朝鮮의 高宗이 종래 大院君의 強硬한 鎖國政策을 포기하고 朝·日 江華島條約 締結時 朝鮮도 ‘主權國家’라는 日本側의 主張을 受容함으로써 형식적으로 朝鮮의 自主性이 再確認되었다. 江華島條約 締結후 駐日美國公使 빙엄(John A. Bingham)은 이사실을 本國政府에 報告하면서 上記條約內에 船舶의 航海安全과 難破船 救濟 等の 條項이 있음을 지적한 뒤 朝美兩國關係의 正常化를 促求하였던 것이다.⁷⁾

* 本 論文은 1992年度 大學研究費 조성에 의한 것임.

- 1) Denett Tyler, Americans in Eastern Asia, A Study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ference to China and Korea in the 19th Centur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3), p. 419.
- 2) National Archives, Record of the Department of State, Diplomatic Instructions, China, No. 9: Fish to Low, April 20, 1870.
- 3) 朴日根, 켈킨스에 대한 駐上海 美領事裁判, 南延君墓所 盜掘事件에 關하여, 釜山大 論文集 第11輯 (1970), pp. 1-22.
- 4) National Archives, op. cit., Dip. Desp., No. 71: Low to Fish June 2, 1871.
- 5) Ibid., Dip. Inst., No. 9: Fish to Low, April 20, 1870.
- 6) 中國故宮博物院編, 籌辦夷務始末(台灣台北: 國風出版社, 1962) 卷80, 同治 10辛未 1月.

이러한 朝鮮國內의 狀況變化와 더불어 1878年 4月 8日 美國議會에서 사전트(Arson A. Sargent) 上院議員은 헤이스(R. B. Hayes) 大統領에게 日本의 友好的 斡旋으로 朝美兩國間的 通商條約締結을 위한 共同決議案提出을 促求하였다.⁶⁾ 그리하여 國務長官 에바트(William Maxwell Evarts)와 海軍長官 톰슨(R. W. Thompson)은 相互協議後 國務長官은 同年 10月 29日 슈펠트(R. W. Shufeldt)에게 朝鮮과의 通商交涉을 하도록 權限을 賦與하는 한편 슈펠트의 任務遂行에 日本政府의 協助와 支援을 要請하도록 빙엄公使에게 訓令을 내렸다.⁹⁾

이리하여 슈펠트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印度海岸의 諸島嶼를 거쳐 1880年 4月 15日 長崎에 入港하였다.¹⁰⁾ 日本外務卿 井上馨의 紹介로 5月 14日 釜山港에 入港한 슈펠트는 駐釜山日本領事 近藤眞鋤를 仲介로¹¹⁾ 東萊府使 沈東臣에게 面談을 신청하였으나 美國이 江華島砲擊같은 敵對行爲를 恣行했다는 理由로 通商交涉의 提議가 거절되고 말았다.¹²⁾

이에 日本으로 돌아간 슈펠트는 재차 빙엄公使를 통해 日本外務省에 부탁한 결과 井上外務卿이 禮曹判書 尹滋承에게 公式으로 美國과의 通商條約을 締結하여 開國하도록 권고하는 親書¹³⁾를 傳達하겠다고는 約束과 함께 슈펠트가 朝鮮側의 회답을 長崎港에서 기다린다는 條件下에 再交涉이 試圖되었다. 이때 日本을 통한 슈펠트의 通商交涉이 실패하였다는 駐長崎中國領事 余준의 提報¹⁴⁾에 따라 駐日公使 何如璋은 5月 29日 總理衙門에 同事實을 報告하자 곧 李鴻章에게 이를 通告하였다.¹⁵⁾ 이에 李鴻章은 同報告야말로 自身이 朝美通商交涉을 斡旋해 줄 수 있는 好機로 판단하고 長崎에서 高宗政府의 回信을 고대하던 슈펠트에게 親筆¹⁶⁾로 된 招請狀을 보내 그를 天津에 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李鴻章이 朝美修好條約의 斡旋을 自請하게 된 것은, 日本의 台灣事件(1874年), 雲揚號事件(1875年), 琉球併合事件(1878年) 및 淸러伊犁紛爭(1880年)以後 國內政治人, 軍人, 駐北京外交官, 海軍提督 等¹⁷⁾이 日本의 政治的 侵略성과 러시아海軍에 대한 警戒論을 提起하면서 朝淸兩國의 宗屬關係維持를 위하여 朝鮮과 西歐와의 通商交涉을 강력히 建議하였고,¹⁸⁾ 이에 자극받은 淸廷의 總理衙門이 그와 何如璋公使에게 朝鮮과 西方國家間的 修好斡旋權을 委任했기 때문이었다.¹⁹⁾

- 7) National Archives, op.cit., Dip. Desp., Japan. No.194: Bingham to Fish, March 21, 1871.
- 8) Lee Yur-Bok,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866-1887 (Humanities press, N. Y.:1970), p.36.
- 9) National Archives, op.cit., Thompson to Shufeldt, October 29, 1878, in Crusise of the Ticonderoga, pp.4-5.
- 10) Ibid., No.12 : Shufeldt to Thompson, Nagasaki, Japan, April 26, 1880.
- 11) 韓國研究院 圖書館所藏, Microfilm, Despatches from U.S. Minister to Japa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6, 1880.
- 12) 上同, 高宗實錄, 卷17, 1880. 4. 10.
- 13) 中國外交部, 朝鮮檔案, 何如璋主持外交議, 1880. 5. 21.
- 14) 朴日根, 近代韓美外交史(서울:博友社, 1968), pp.92-3.
- 15)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編「淸季中日韓關係史料」, 1972, 出使日本國大臣 何如璋函, 1980. 6. 11.
- 16) National Archives, Li Hung-Chang to Shufeldt, July 2, 1880, 7月 23日附 英文으로 된 李鴻章의 私信은 余領事에 依해 8月 9日 슈펠트에게 傳達되었다.
- 17) 前 福建巡撫使 丁日昌과 南洋大臣 劉坤一, 駐北京英公使 웨이드(T. F. Wade), 駐日英公使 파크스(H. Parkes), 佛海軍提督 가르동(Charles G. Gardon) 등의 建議와 主張등을 가리킨다. (中日交涉史料卷 2, 33, 62. 72)
- 18) 中國故宮博物院編,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上冊(台灣:文海出版社 1960)33, 附件 1.
- 19) 王彥威編, 淸季外交史料, 文海出版社, 卷 25, 頁 1-3.

李鴻章은 이미 1879年 李裕元에게 “朝鮮의 憂”가 곧 淸國의 憂라는 점에서 西方諸國과의 條約締結은 ‘備俄抗日’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以夷制夷’ 政略임을 力說하면서 朝鮮이 西方諸國과 通商條約을 締結하도록 說得²⁰⁾한 바 있기 때문에 쉽게 朝鮮爲政者에게 修好를 권유할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 그는 日本政府를 통해 朝美修好條約締結을 交渉中이던 슈펠트가 8월 12일 井上馨으로부터 朝鮮政府가 美國과의 通商條約을 不願한다²¹⁾는 情報를 何公使로부터 入手하자 슈펠트特使를 天津으로 招請하기로 決心하였다.

1880年 8月 23日 天津에 도착한 슈펠트는 3日후 李鴻章과 비밀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슈펠트는 李鴻章에게 朝鮮海岸에서 難破漂流되는 美國船員의 生命과 財産保護를 규정하는 朝美條約을 희망하였으며 아울러 朝鮮半島는 淸國側에서 볼 때 日本과 관련하여 戰略上 要衝地임을 강조하고²²⁾ 가능한 한 淸露兩國의 開戰은 피하도록 勸告하였다. 슈펠트는 李鴻章으로부터 그 자신의 影響力으로 條約이 성취되도록 努力할 것이며, 또한 淸國海軍의 顧問職을 약속 받은 후 歸國길에 올랐던 것이다.²³⁾

한편 李鴻章은 朝鮮에서 派遣한 李容肅과의 筆談을 갖고 江華島條約締結 후 5년이 지났음에도 朝鮮이 아직도 關稅徵收와 輸出入商品에 대해 稅額을 賦課하여 自國産物을 保護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이미 슈펠트特使에게 朝美修好條約斡旋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馬建忠과 天津稅關長 鄭藻如가 草案作成한 朝美通商條約을 李容肅에게 전달하여 그가 同草案을 갖고 귀국하도록 指示하였다.²⁴⁾ 모두 10款으로 구성된 草案의 要點은 第2款에 朝美外交關係를 總領事級으로 하되 駐北京美公館의 歸屬下에 두고 第6款에 各種輸入貨物에 대하여 그 價値의 100분의 10, 輸出貨物에 100분의 5를 各各 徵收하고, 第9款에 公用語로 中國語를 併用하는 等²⁵⁾ 中國政府의 政治의 立場을 反映하는 내용이였다.

이리하여 李鴻章은 1881年 2月 28日(2月初 1日) 皇帝에게 “朝鮮王이 오랫동안 中國의 冊封을 받고 있으므로 朝鮮이 日本과 他國(美國)에 주는 公文書에 封號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國政은 비록 朝鮮에 의하여 自主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淸國屬邦의 名칭은 잃지 않게 됩니다”라고 上奏하여²⁶⁾ 朝美修好條約內 朝淸兩國의 傳統的 屬邦關係를 明示하도록 하였기에 向後 淸國이 朝鮮의 宗主國이라는 사실을 明示해 두었음을 報告하였다.

한편 淸國의 斡旋에 의한 朝美修好와 政府의 秘密外交交渉說이 나도는 가운데 高宗은 同年 2月 20日 紳士 遊覽團 數十名을 東萊暗行御史로 가장하여²⁷⁾ 몰래 釜山을 거쳐 日本에 派遣하였다. 派日 소식이 나돌게 되자 3月 25日 國內儒生 李晚孫 等은 萬人疏를 제출하여 政府의 비

20) 上同 卷 16, 頁 7-14, 李鴻章의 書信을 받은 李裕元은 1879年 11月 20日과 12月 24日 兩次에 걸쳐 國內西學忌避 現象과 國家經濟의 貧困性을 理由로 政府의 修好反對 立場을 傳達한 바 있다(照錄朝鮮前任太師李裕元函稿).

21) National Archives, op.cit., Dip. Desp., China, Bingham to Evarts, September 14, 1880.

22) 李鴻章撰, 「李文忠公全集」, 奏稿 38, 1880. 10. 7.

23) National Archives, op.cit., No. 21, Shufeldt to Thompson at Sea. Aug. 30, 1880.

24) 王彥威編, 前揭書, 卷25, 頁 5-6.

25) 李鴻章의 草案中 가장 重要視되는 條款은 第2款, 此次立約通好, ○國派總領事於美國駐節, 其餘通商各國可派領事照料, 本國商民遇有交涉重大事件不能就近妥協者, 右由該總領事詳, 達其駐節 中國北京之水使設法籌辦條, 第6款…茲於各色進口貨價値百抽十, 出口貨價値百抽五, 第9款…此次所定條約, 係用中國 文朝鮮進口文某國文各四紙…除用本國文字 以中國文爲正으로 알 수 있다 (中研, 前揭書, 代擬朝鮮與各國通商約章, 1881. 2. 26).

26) 楊家駱主編, 中日戰爭文獻彙編(臺北:鼎文書局, 1973), 頁 3156.

27) 高宗實錄, 卷18, 1880. 12. 14.

밀 修好策을 정면으로 공격하자²⁸⁾ 政府는 儒生斥和者들을 ‘力抗君命者’로 단정하여²⁹⁾ 遠地로 流配措置하였다. 그러나 黃載顯, 洪時中같은 武科出身 軍人勢力들은 계속 “通商이 戰爭을 招致할 우려가 있고 朝鮮으로서는 通商計劃의 利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³⁰⁾는 이유를 들어 修好策을 강력히 反對하였다. 이들 斥和者들의 斥和原因은 무엇보다 極東情勢의 變化에 의해 開國하지 않을 수 없는 時代的 潮流를 이해하지 못한 儒生集團의 時局觀과 이에 못지않게 西洋人에 대한 敵愾心과 沒理解에 基因한 것이었다.³¹⁾

이와같이 政府와 과격한 斥和勢力間의 相互對立과 葛藤이 심화되자 國王은 후퇴하여 李東仁이 行방불명된 후 4月말경에 재차 卓挺植僧을 밀파시켜 何如璋公使를 만나 현시점에서 당분간 修好事가 거론되기 어려운 狀況임을 통고하도록 하였다.³²⁾ 이리하여 卓挺植密使가 5月12日 何如璋公使에게 “朝廷諸臣 중 外交를 원하는 자는 10名 중 7名이지만 國民중에는 1名도 없다”³³⁾고 하여 國論이 극도로 分裂된 狀況을 전하며 일단 駐日清國公館의 斡旋으로 추진된 修好交涉을 중지하도록 要求하였다.

그러다가 ‘神上遊覽團’중 趙準水, 朴定陽 등은 5月 24日 何如璋公使에게 전과같은 國內修好 反對實情을 전하였다.³⁴⁾ 그러나 일행중 國王의 御命을 받은 洪英植과 魚允中은 7月 27日 何如璋公使를 방문, “만약 美國이 재차와서 修好를 요청한다면 전과 같이 書翰을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³⁵⁾고 하여 2개월 전과는 달리 國內政治的 狀況이 크게 改善된 점을 알려 美國과 再修好할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何如璋公使는 高宗이 修好反對勢力을 제압하고 修好策을 執行한 것으로 판단하고 7月 28日 總理衙門에 同事實을 報告하였다.

한편 駐東京 병엄公使로부터 朝鮮政府의 修好意思를 確認한 가아필드(James Abran Garfield)와 美國政府의 新任國務長官 블레인(James G. Blaine)은 슈펠트가 李鴻章으로부터 清國海軍顧問職을 맡아주도록 要請을 받았고 또한 朝美通商修約 斡旋을 하여주겠다는 언약을 받았다는 事實을 듣고,³⁶⁾ 海軍長官 톰슨에 부탁하여 슈펠트를 極秘로 駐北京公館의 海軍武官으로 任命하여 朝鮮과의 條約締結權限을 賦與하였다. 이 때문에 駐北京公使 엔젤(James Angell)조차 슈펠트로부터 직접 이 사실을 듣기전에는 美國政府가 朝鮮과의 修好條約을 締結한다는 방침을 몰랐던 것이다.³⁷⁾

슈펠트는 1881年 5月 19日 北京到着前 天津에 滯留하면서 朝鮮과의 通商條約締結交涉에 관한 情報를 蒐集해서 國務省과 駐北京公使에게 報告하라는³⁸⁾ 要旨의 訓令을 國務長官으로부터 받고 그의 舍愛 메어리(Mary A. Shufeldt)를 秘書로 하여 日本을 經由 6月 21日 上海에 到着하였다.³⁹⁾ 그는 7月 1日 李鴻章을 방문하여 美政府의 公翰을 제시하고 그와 會談을 가졌다. 李鴻章은 그에게 昨年 8月以後 朝鮮代表를 통하여 朝鮮에 美國과의 條約締結을 說得한 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지만, 결국 同條約은 締結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⁴⁰⁾ 長期的 忍耐가 필요하

28) 上同, 1881. 2. 26.

29) 日省錄, 1881. 3. 15.

30) 高宗實錄, 1881. 3. 23.

31) 中研, 前揭書, 照錄朝鮮前使日本金宏集來函, 1881. 3. 12.

32) 朴日根, 前揭書, pp. 219-20.

33) 中研, 前揭書, 出使日本大臣何如璋, 1881. 4. 23.

34) 上同, 1881. 5. 28.

35) 上同, 1881. 7. 3.

36) Lee Yur Bok, op.cit., p. 38.

37) National Archives, op.cit., No.187, Angell to Blaine, Peking, July 16.1881.

38) Ibid., op.cit., Dip. Inst., No.948, James Blaine to Angell, May 9,1881.

39) Ibid., Shufeldt to Blaine, Tientsin, July 1, 1881.

다고 설명하였다.

슈, 李兩人이 會談하고 있는 時刻에 朝鮮에서는 7월부터 慶南, 京畿, 忠清道 各地의 儒生들이 올린 「斥邪疏」에 便乘하여 江原, 全羅道の 儒生들마저 합세하여 修好反對運動을 전개하고 重臣들중 修好를 주장한 人士들의 처벌과 國王의 失政까지 攻擊하였다.⁴¹⁾ 그리하여 高宗은 修好策을 主唱한 金宏集을 7月 31日附 罷職시키고 李裕元을 自退形式으로 강등하는 대신 斥和主謀者格인 京畿의 申燮과 江原道の 洪在鶴을 遠惡島로 流配하는 등⁴²⁾ 강경한 彈壓策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硬塞한 政治的 狀況때문에 高宗은 學生技術學習問題로 天津에 派遣한 李應俊人便에도 前에 李鴻章이 부탁한 修好問題에 관한 政府의 확고한 태도를 傳達하지 못하였다.

李鴻章은 朝鮮政府代表 李應俊과의 會談에서 7月 10日 비로소 슈펠트의 天津滯留消息을 알리면서 “領選使가 學習生을 인출하고 天津에 올때 學生技術名義를 빌어 政府가 中國에 全權大臣을 派遣하여 슈펠트와 修好事를 討議하되 그때 시간을 보아 淸國이 다시 代表를 朝鮮에 派遣하여 條約調印과 署名을 도울 것이라고”⁴³⁾ 하였다. 會談內容을 보면 李鴻章은 朝鮮政府代表와 슈펠트가 天津에서 修好事를 토의하도록 희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7月 13日 李鴻章은 슈펠트와의 第2次 會談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이미 朝鮮에 書翰을 보냈으니 90日以內 회답이 있을 것이며 그때까지 天津에서 기다리도록 부탁하였다. 슈펠트는 그렇게 하겠으나 朝鮮에서 代表가 도착되면 직접 면담하고 싶다⁴⁴⁾고 하여 李鴻章이 朝美通商交涉과 條約討議에 직접 關與하지 못하도록 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슈펠트는 李鴻章으로부터 약속받은 3개월이 經過한 11월초까지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고 그가 약속한 海軍要職勤務도 駐北京外交使節團 중 특히 英, 佛公使의 壓力으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兩者間的 關係는 매우 미묘하게 되었다.⁴⁵⁾

한편 ‘紳士遊覽團’ 중 駐日何如璋公使를 만난 洪英植과 淸國에서 李應俊 등이 歸國하자 高宗은 修好再推進을 결정하고 9月 10日附 金允植을 領選使로 任命하였다.⁴⁶⁾ 그러나 國王이 20日附 李最應을 領議政에서 解職시켜 總理人臣職에만 留任토록하고⁴⁷⁾ 事大派 趙秉鎬와 李祖淵은 각각 修信使와 從使官으로 임명하여⁴⁸⁾ 數個月前 何如璋公使와 筆談한 바 있는 事大派 魚允中과 接觸하도록 日本에 密派한것은⁴⁹⁾ 중과 開化派 主導下에 시도된 修好交涉에서 事大派 人物들을 중심으로 再推進한다는 政治的 措置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趙·李를 日本 神戶에서 만난 魚允中密使는 上海로 직행하여 李鴻章과 만나 筆談하였다. 魚允中과 李鴻章간의 筆談內容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魚允中密使는 그에게 國王이 李應俊人便의 修好草案과 李鴻章이 보낸 親書를 접한 것을 통고하는 반면 李鴻章은 재차 그에게 高宗政府가 내년봄까지 朝貢使人便에 修好條約 討議를 위한 全權代表를 派遣하여 주도록 要請한 것 같다.

40) 中研, 前揭書, 美總兵肅佛爾到天津晤李鴻章.

41) 高宗實錄, 卷 18, 1881. 閏 7. 6-9.

42) 上同.

43) 中研, 前揭書, 李鴻章密兩朝鮮, 勸籍率領匠來津爲名, 派員與肅佛爾商談約事로 알 수 있다.

44) National Archives, op. cit., Shufeldt to Holcombe, Tientsin, 16 Dec, 1881.

45) Ibid., No. 70. Holcombe to Frelinghuysen, Peking, February 29, 1882.

46) 日省錄, 1887. 閏7. 15.

47) 備邊司臚錄, 1881. 閏7. 25.

48) 高宗實錄, 1881. 閏7. 7

49) 魚允中, 從政年表, 頁121.

Ⅲ. 淸國의 對朝鮮政策과 美國과의 修好通交涉

李鴻章은 日本의 膨脹主義와 관련하여 1874年 新興日本의 台灣 侵略事件을 注視하였다.⁵⁰⁾ 더욱 翌年 2월 中國雲南地域에서 발생한 英國人 마가리(Margary)被殺事件으로 인하여 淸國과 英國間의 開戰直前に 처한 이들 兩國間의 不和關係를 이용하여 日本政府는 고의로 船長 井上良馨海軍少佐를 中國海峽을 거쳐 朝鮮沿岸에 派遣하여 그가 인솔한 日艦雲揚號가 江華島 內岸에까지 不法侵入해 朝鮮海峽에서 이른바 江華島事件을 惹起하였다.⁵¹⁾

이러한 日本의 계획적인 江華島砲擊事件의 도발행위를 탐지하지 못한 駐日美國公使 빙엄(John A. Bingham)은 10월 6일 國務長官 피시에게 “...朝淸關係를 고려하여 만약 朝日間에 戰爭이 發生할 경우 美政府는 淸日兩國과 平和的인 友好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일정한 中立을 宣旨하는 것이 타당할 것”⁵²⁾이라는 의견을 제시, 美國政府가 日本의 朝鮮開國에 關心을 갖도록 喚起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駐北京美國公使 아베리(Berj. P. Avery)는 10월 26日附 國務省에 朝日武力衝突事件을 보고하여 건의하기를 “淸國은 日本의 朝鮮에 대한 同問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만약 朝日兩國間에 戰爭이 發生할 경우 淸國은 어떠한 積極的인 태도로써 간섭할 것인지는 매우 의심된다”⁵³⁾고 하여 戰爭이 일어나더라도 淸國이 朝鮮을 지원해 주리라는 가능성을 排除하였다. 이와 같이 駐東京과 北京外交官間에 江華島事件을 둘러싸고 淸國政府의 態度를 각각 달리 판단한 가운데 淸國政府가 朝鮮政府에게 閉關自守政策을 포기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朝鮮은 日本政府가 파견한 特命全權大使 陸軍中將 黒田淸隆(Kuroda Kiyotaka)과 副大使 井上馨(Inouye Kaoru)와 正使 申憲, 副使 尹滋承과 3차회담을 거쳐 1876年 2月 27日 第11款으로 구성된 이른바 江華島條約을 締結하였다.⁵⁴⁾

江華島條約締結 소식이 北京에 전해지자 일찍 朝鮮開國遠征計劃을 구체화시켰다가 최후단계에서 로우(Low)公使와의 不和關係로 朝鮮開國遠征에 불참했던 시워드(G. F. Seward) 駐淸美國公使代理는 2월 12日 國務長官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淸國政府는 日本이 朝鮮에서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 같다”⁵⁵⁾고 보고하였다. 반면 私의으로 駐日빙엄公使에게 “淸國은 日本의 영구적인 朝鮮占領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朝鮮을 占領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朝鮮半島의 인접국가로서 러시아보다 日本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⁵⁶⁾고 하여 淸國은 日本보다 러시아를 第1의 敵國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때 시워드 公使代理는 3월 14日 피시國務長官에게 朝鮮과의 通商交涉을 재개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自國遭難船員 보호 및 구제조항 등을 골자로 한 朝

50) 朴日根, ‘韓美修好條約에서 본 美·中의 對韓政策, 高宗의 秘密外交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論文集 第24輯, 人文·社會科學篇(1977. 12), pp. 41-57.

51) Kim Key-Hiuk,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1860-1882(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1980), pp.231-233.

52) National Archives, op.cit., No.181, Bingham to Fish, TokyoJapan, October 6, 1875.

53) op.cit., No.17, Avery to Fish, Peking, China, October 26th, 1875.

54) Kim Key-Hiuk, op.cit., pp.245-255.

55) National Archives, op.cit., No.16, Confidential, Seward to Fish, Hong Kong, February 12th, 1886.

56) op.cit., No. 16.

鮮과의 通商條約締結을 再推進하도록 건의한 뒤 이에 대한 本國政府의 태도를 訓諭하여 주도록 요청함으로써 自身の 朝鮮開國에 대한 執念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시(Fish)國務長官은 시워드公使代理가 강력히 요청한 朝鮮과의 통상교섭건의안에 대해 6월 24일 “지금은 朝鮮과 交涉을 시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⁵⁷⁾고 하여 평화적 방법이 아닌 무력에 의한 朝鮮開國遠征을 反對한다는 態度를 밝혔던 것이다.

그러던 중 美國內 政治狀況은 8년간 집권한 그랜드(Grand)將軍의 政府가 다음해 1877년 3월에 물러가고 헤이즈(Rutherford Bichard Hayes)大統領의 共和黨政府가 계속 집권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新政府는 國家政策을 수행하는 要職에 의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는데 피시 國務長官의 후임에 에바츠(William Maxwell Evarts)를 임명함으로써 新政府閣僚에 많은 國家主義者들이 동용될 수 있었다.⁵⁸⁾

더욱이 그 당시의 美國內 事情은 1873년 이후 商工業은 不況期에 처해 있었고 美國產 제품의 과잉생산으로 생긴 잉여물을 팔 外國市場開拓을 하지 않으면 美國內 工業勞動者들은 失職할 상황하에 있었다. 따라서 外國과의 貿易을 증대시켜 景氣를 回復시켜야 할 절박한 처지였으며, 이러한 經濟的 要因을 外交政策에 反映할 필요가 절실하였다.⁵⁹⁾

이와같은 상황하에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上院議員이며 海軍常任委員長인 사전트(Arson A. Sargent)議員은 1878년 4월 8일 上院에서 朝鮮이 1876년 朝日條約에 의하여 완전한 獨立國家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른 國家들과 상호平和와 通商을 통한 利益을 얻으려는 의도를 표명했기 때문에 美國은 모든 國家들과 平和의 關係를 유지하기 위하여 美國大統領이 日本의 중재와 협조를 얻어 朝鮮과 通商條約을 준비하기 위한 主權委員을 任命하고 필요한 5萬\$ 상당의 經費使用權限을 이들 主權委員에게 부여하도록 하자는 공동결의안을 제출하였다.⁶⁰⁾ 4월 17일 그는 재차 上院外交委員會에서 朝鮮開國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즉 “...美國은 日本을 제외하고 歐洲文化를 가진 國家 가운데서 朝鮮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러시아가 朝鮮을 占領하면 日本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機械와 農産物에 대한 새로운 市場을 開拓할 수 있는 최선의 효과적인 方法을 강구하여 2000萬 朝鮮人을 우리의 商品顧客으로 이끌도록 하자”⁶¹⁾고 하였다.

이와같이 사전트議員은 1871년 辛未洋擾에 대한 美國의 道義的 責任을 역설하면서 政府가 朝鮮開國案을 채택해 주도록 강조하였다. 그러다가 同年 10월 29일 분명히 同決議案과 관련된 톰슨(Richard W. Thompson)海軍長官 主導下에 朝鮮開國案이 구체적으로 討議됨에 따라 美政府는 일찍 1866년 셔어먼號 진상조사를 위해 來朝한 바 있는 슈펠트(Robert W. Shufeldt)提督에게 朝鮮과의 通商條約締結權限을 부여하였다.⁶²⁾

슈펠트提督이 이러한 權限을 부여받게 된 動機는 그가 톰슨長官에게 “1866년 이후 朝鮮은 美國商品의 有望한 市場이며 사실상 極東에서 美商業擴張의 重要한 關門이 될 것”⁶³⁾이라는 字

57) op.cit., Seward to Fish, Unofficial and Private Despatch, Hong kong, March 14th, 1886(China Despatches, Vol.40).

58) Paterson Thomas G., Clifford J.Garry, and Hagan Kenneth J. American Foreign Policy/A History(D.C. Heath and Company, 1977), pp.155-178.

59) Jones F.C.,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Department of History Harvard University, 1935), p.177.

60) U.S. Congressional Record, 45th Congress, 2nd Session, April 8, pp. 2324-2325.

61) Ibid., Vol. VII, Part 3, pp.2324, 2600, 2601.

62) National Archives, op.cit., Thompson to Shufeldt, Navy Department, 29th, 1878 in Cruise of the “Ticonderoga”, Part 1, October pp.4-5.

신의 通商計劃構想이 크게 주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슈펠트는 누구보다 海外市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上院海軍委員長 모스(Leopold Morse)에게 보내는 長文의 書信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商業은 國家의 중요한 정책이며, 둘째, 外國市場 開拓은 剩餘工業生産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美國이 海外市場을 確保할 수 있는 美汽船路線의 世界的 조직망을 설치 및 平和時 美海軍의 역할은 海外貿易에 종사하는 商人들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그 자신의 오랜 信條가 함께 作用되어 발탁되었다고 여겨진다.⁶⁴⁾

이 때 슈펠트提督이 海軍省으로부터 시달받은 6개항의 訓令中에는, “...朝鮮의 港口를 방문하고 朝鮮政府와는 平和的 手段으로 交涉再開에 전력하라. 1871年 朝鮮要塞에 대한 공격에 대해 가능한 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朝鮮政府에 대해서는 온화하고도 宥和의인 行動方針이 朝鮮이 美國과 通商을 개설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貴下는 이점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⁶⁵⁾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 당시 國務省은 현재 狀況으로 보아 朝鮮과 條約을 체결할 만큼 狀況變化가 없다는 意見이었음에 반해 海軍省의 廳長官은 1876年 朝日兩國關係가 실제로 改善된 以後 朝鮮과의 通商交涉 展望이 매우 밝아졌다는 등 각기 다른 展望을 내려 國務省과 海軍省의 朝鮮開國에 대한 見解가 一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國務長官 에바츠는 무엇보다 朝日江華條約條款內에 “朝鮮海岸을 통과하는 船舶의 安全과 難破船員의 救濟 및 送還을 規定”하고 있는 사실을 중요시하면서 駐日美公館으로부터 “日本의 輸出入品目에 대한 課稅問題를 둘러싸고 朝·日兩國間에 不和가 일어났지만 朝鮮政府가 양보하여 紛爭이 해결되었다”⁶⁶⁾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朝鮮政府가 종래의 입장을 후퇴한 것은 世界各國들과 友好通商關係를 改善시킬 의향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⁶⁷⁾ 日本政府를 통한 朝鮮開國政策을 추진하기로 決定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美國의 朝鮮外交政策은 주로 北京과 駐東京美國公館에서 제출한 朝鮮의 情勢報告가 美國의 對朝外交政策의 方向轉換에 重大한 影響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워드公使代理가 1878年 12月 18日 國務長官 에바츠에게 “...朝鮮, 琉球, 삼, 安南(越南), 비마와 같은 各國 朝貢使가 淸廷에 納貢하는 朝貢은 屬國의 재량에 의하여 그 禮物의 가치와 분량이 決定되며 淸國은 답례로 더 많은 禮品을 주는 것이 관례이다... 淸國은 琉球의 경우 駐在監督官을 두지 않고 關稅나 朝貢品도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戰爭發生時 派兵하거나 支援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⁶⁸⁾... 다시말해서 琉球國王의 淸國에 대한 冊封要請은 그들을 承認하는데 불과하며 淸國은 이러한 행사가 忠誠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며 이들 統治者의 民族自主성과 主權을 존중한다는 公式의 意思表示이다”⁶⁹⁾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는 淸國이 주

63) Hagan Kenneth J., American Gunboat Policy and the Old Navy 1877-1889 (Westport: Connecticut Univ. Press, 1962), p.35.

64) Ibid., pp.35-38.

65) U.S. Department of Navy, Thompson Secretary of Navy to Shufeldt, Navy Department, October 27th, 1878, in Cruise of the “Ticonderoga”, Part I, U.S. Navy Department Archives.

66) U.S. Department of State, Evarts to Thompson, November 9th, 1878, No.3. of Instructions to Commodore Shufeldt in Cruise of the “Ticonderoga”, Part I, pp.18-22.

67) National Archives, op.cit., No. 286, Stevens to Evarts, Tokyo, Japan, January 24, 1879.

68) Ibid., No.288, Evarts to Stevens, Department of States, Washington, March 1, 1879.

69) Ibid., No.139, Seward to Evarts, Peking, China, December 11, 1878.

장하는 屬邦關係가 西方國家에서 認識되고 있는 半主權國家와 根本적으로 다름을 주장함으로써 美國政府가 朝鮮을 主權國家로 認定하여 朝美修好通商條約을 締結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한편 朝鮮은 江華島條約 第2條項의 내용에 따라 1880年 7月 31日(陰 6月 2日) 日本公使의 서울常駐와 仁川開港에 따른 稅則問題 등을 協議할 목적으로 제2차 修信使로 金宏集을 日本에 파견하였다. 金修信使는 8월 13일 井上外務卿에게 禮曹判書 尹滋承의 回信을 전달한 후⁷⁰⁾ 數個月前 釜山東萊府를 통해 拒絕된 바 있는 슈펠트提이 제의한 通商交涉要請을 다시 拒絕하였다.

그러나 金修信使가 東京에 체류하는 기간중 “만약 清國公使를 만나지 않으면 兩國關係가 악화될 것”⁷¹⁾이라는 駐朝日本 花房公使의 강력한 권유로 그는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6차례 걸쳐 駐日清國公使 何如璋과 參贊 黃遵憲과 면담하였다. 그런데 金修信使가 何公使의 答訪을 받고 3次로 筆談한 8월 23일 會談에서 何公使는 먼저 “...만약 朝鮮이 日本과의 修好만을 고집한다면 後患이 있기 때문에 西方各國과도 修好하여 견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러한 均衡政策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응하는 防策임을 역설하여 美國을 지칭하지 않고 西方各國과의 修好通商策은 國益을 가져다 줄 것”⁷²⁾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朝鮮政府가 早速히 美國과의 修好通商條約을 締結하도록 주장하였다.

또 8월 26일(7월 21일) 제4차회담에서 何公使는 修信使 金宏集에게 조약체결에 따른 輸入商品에 대하여 重課稅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방법 등 전문적 지식을 본격적으로 가르쳐주었다. 동시에 그는 美國의 公正性, 民主體制, 國家富力 및 信義性 등을 의식적으로 찬양한 뒤 “...美國과의 通商은 有益無損하니 이러한 萬世一時的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美國과 條約을 締結하여 有事時 대비하여야 된다”⁷³⁾하여 美國과의 關係改善이야말로 격변하는 極東情勢를 대처하는 불가피한 對案임을 強調하였던 것이다.

何公使는 金修信使를 說得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9월 6日 參贊 黃遵憲과 자신의 外交政策을 反映한 ‘親中, 結日, 聯美’의 防露策을 골자로 한 「朝鮮策略」을 진내하면서⁷⁴⁾ 귀국 즉시 朝鮮政府에 전달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부탁하였다. 「朝鮮策略」이란 何·黃兩外交官의 독창적인 시국관이나 外交의 眼目에 의한 政策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伊犁紛爭으로 악화일로의 위기에 처한 清露兩國關係와 그 장래를 우려하여 極東에서 不凍港을 구하려는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저지시켜야 된다는 당시 出刊된 東京의 「日日新聞」의 社說을 비롯한 당시 國際情勢의 추이를 再反映시킨 내용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하튼 이러한 日本의 여론은 朝鮮에서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저지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清日兩國의 利害가 一致되었다는 사실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와같이 日本과 清國外交官들로부터 修好壓力을 받아 苦心속에 있던 金修信使는 何如璋公使와 접촉하는 기간에 자신이 투숙하고 있었던 淺草別院(Asakusa)에서 東萊梵魚寺 출신의

70) U.S. Dep. of State, op.cit., No.158, Kennedy to Granville, August 12th, 1880 및 國史編纂委員會, 修信使記錄(서울:三一印刷株式會社, 1958), pp.171-179.

71) 金宏集, 「金宏集遺稿」道遠遺稿外編, 回還修信使別單(서울:高麗大學校出版部, 1976. 8. 11), pp. 86-88.

72) 朴日根, 韓美修好條約에서 본 美·中의 對韓政策: 高宗의 秘密外交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論文集」第24輯, 人文·社會科學篇(1977. 12), pp. 41-54.

73) 國史編纂委員會, 「修信使記錄」, pp.171-181 및 金宏集, 前掲書, 7月 22日 往大清公署, pp.317-319.

74) 中研, 前掲書, 光緒6年 16日 出使大臣何如璋等函, pp.437-439.

李東仁을 상봉할 수 있었다. 이때 李東仁은 이미 1년전 劉大致의 지도하에 규합된 젊은 開化派人士인 金玉均, 朴泳孝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開化黨의 후원으로 日本에 밀파되어⁷⁵⁾ 그곳에서 수학하고 있던 開化黨의 政治理念에 同調한 開化僧이었다. 그는 당시 駐日英國公館에서 日本通譯官으로 근무하여 二等書記職位까지 승진한 英國人 사토우(Ernest Mason Satow)⁷⁶⁾와의 知面關係를 利用하여 그와 절친한 日本政界의 거물급인사 外務卿 井上馨을 비롯한 伊藤博文(Ito Hirobumi)와 같은 젊은 政治人들을 폭넓게 접촉하고 있었다.⁷⁷⁾

修信使 金宏集은 開化僧 李東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日本政界人士와 駐東京外交官과의 교우관계, 그가 가진 國際情勢를 보는 탁월한 眼目, 유창하게 구사하는 日本語 등 諸般條件은 장차 예상되는 朝美修好通商交渉에 필요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國家 重大事에 반드시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그는 9월 8일 李東仁을 대동하고 東京을 출발하여 귀국 길에 올랐다. 10월 2일(8월 28일) 高宗을 알현한 金宏集 修信使는 그가 직접 관찰한 日本 各分野에 대한 소감과⁷⁸⁾ 何如璋公使와 黃遵憲參贊과의 면담결과 등을 進言하면서 그들이 준 「朝鮮策略」이 곧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임을 알리고 이를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朝鮮半島를 중심으로 격동하는 東北亞情勢의 변화와 특히 淸露兩國의 伊犁紛爭結果를 비롯한 러시아의 南下進出政策이 國家安全에 미칠 영향을 認識하게 된 高宗은 金宏集 修信使와 開化僧 李東仁이 주장한대로 러시아의 軍事的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美國과의 修好通商條約이 절대로 필요하며 이것만이 위기에 처한 國家를 救濟할 수 있는 必要的 自強策임을 認知하게 되었다.

IV. 高宗의 秘密外交와 李東仁의 聯英防露構想

1876년 2월 日本이 雲揚號事件을 일으켜 武力侵攻의 감행을 계기로 강요된 江華島條約은 朝鮮이 名實共히 第3國과 正式外交關係 수립을 약속한 조약이었으며 同條約으로 朝鮮의 鎖國政策은 그 幕을 내리게 되었다. 비록 同條約은 朝鮮을 自主獨立國으로 規定하여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參與토록 明示하였으나 朝鮮을 淸國의 예속에서 벗어나도록 意圖한 日本政府의 立場에서 締結되었기 때문에, 尙後 日本이 朝鮮의 主權을 침범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同條約締結을 계기로 朝鮮은 日本의 經濟的 侵透로 점차 商品販賣市場化되어 日本 資本主義의 본격적인 侵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日本의 經濟적 침투는 內部로부터 붕괴과정을 견고 있었던 朝鮮社會의 封建體制를 더욱 危機로 몰아 넣었고, 자금자족의 전통적 농촌경제도 점차 파괴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國家收入의 감소 및 國家財政도 고갈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⁷⁹⁾ 政治的으로는 執權勢

75) 李光麟, 開化黨研究(서울:一潮閣, 1973), pp. 96-98.

76) 그의 탁월한 外交術이 인정되어 51세때인 1895년 駐日英國全權公使, 1900년에 駐淸國全權公使로 임명되어 크게 활약하였으며 日本政界와의 관계는 그로 하여금 당시 英國의 對極東政策을 형성, 수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77) Lesen, George Alexander,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1895-1904), The Observation of Sir Ernest Mason Satow, British Minister Plenipotentiary to Japan (1895-1900) and China(1900-1906), The Diplomatic Press (Tallahassee, Florida: Rose Printing Co., 1966), p. 7: 朴日根, 前掲書, p. 153.

78) 「高宗實錄」中卷, 高宗17年, 庚辰 8月 28日條.

79) 金義煥, 韓國近代史研究論集(서울:成進文化社, 1972), p. 154.

力 閔氏一派를 중심으로 하는 事大黨이 종래의 전통적인 事大思想 및 儒敎的 統治理念에 따르는 절대다수의 封建官僚 및 清國의 支配勢力과 결탁하여 자기들의 獨占的 支配體制를 維持強化하려는 狀況이었다.

그리하여 朝鮮의 國內外的 現實과 執權官僚들의 安일한 態度를 우려한 일부 執權層의 젊은 엘리트들은 早速히 外國의 先進科學文明과 技術을 도입하여 낙후된 經濟를 발전시키고 國力을 배양할 수 있는 改革의인 對內外 政策을 講究하게 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요청에 부응하고자 閔氏集團의 事大主義的 支配體制를 改革하고 外國의 新文物을 도입하여 富民強國의 近代國家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결성한 것이 곧 開化黨이었다.⁸⁰⁾

金玉均, 朴泳孝 등을 中心으로 한 開化派는 朴趾源의 實學思想의 전통을 계승하고 清國을 통한 西歐諸國의 新知識을 習得한 朴珪壽의 思想的 影響을 받았으며 漢語譯官으로 年貢使의 通譯으로 활약한 吳慶錫으로부터 入手한 「海國圖誌」와, 「瀛環志略」등의 新書籍을 건네받아 탐독한 劉大致에 의하여 西洋各國의 政세를 알게 되어 朝鮮社會의 內政改革이 不可避하다는 改革思想을 갖게 되었다.⁸¹⁾

특히 開化思想의 主唱者 劉大致의 指導를 받았던 開化派人上들은 梵魚寺의 開化僧 李東仁을 통해 日本의 近代化 實狀과 그를 통해 入手한 外國書籍을 탐독하여 外國事情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西歐에 대한 情報를 수집하기 위하여 1879년 7월 초에 李東仁을 日本으로 밀항시켰다.⁸²⁾ 그 당시 李東仁은 開化黨을 대표하여 日本에 대한 對外活動을 직접 실행한 최초의 朝鮮人이었다. 이와같이 李東仁은 처음 劉大致와 親交하였고, 그의 소개로 金玉均등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런데 李東仁의 日本人과의 접촉은 日本本願寺 釜山別院을 통해 日本近代化의 모습을 注目함으로써 이루어 졌고 이를 계기로 日本에 대한 關心과 研究를 하기 시작하였다.⁸³⁾ 특히 李東仁이 釜山에서 입수한 「萬國史記」와 世界各國의 都市와 軍人을 찍은 사진 및 瑤地鏡(萬華鏡) 등을 金玉均등에게 보여주어 이들에게 外國事情을 인식시켰다. 金玉均은 李東仁으로부터 다른 書籍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朴泳孝등과 함께 私財를 처분하여 旅費를 마련하고 外國의 情勢에 관한 文獻과 資料를 구입, 장차 예상되는 外國과의 修好策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때 李東仁을 極秘로 日本으로 건너가게 하였다.

李東仁은 金玉均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日本 本願寺 釜山別院의 協力과 주선으로 日本에 건너가 京都의 本願寺에 기거할 수 있었다. 그는 翌年(1880年) 3월에 東京의 淺草別院으로 옮겨 체류하면서 日本語를 학습하고 日本朝野의 政治家들과도 親交를 맺고 日本政府의 態度와 情勢 및 文物과 制度등을 관찰하였으며, 인편이 있을 때마다 서울의 金玉均, 朴泳孝등에게 書籍을 보내면서 부단한 連絡을 취하였다.⁸⁴⁾ 그때 李東仁은 日僧 寺田福壽의 소개로 日本近代化의 아버지라 불리는 福澤諭吉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朝鮮의 開化派人物과 福澤과의

80) 開化黨의 形成에 관하여 開化派人物들의 내부적 결함시기를 1874년경으로 보고, 비밀결사로서의 세력을 형성한 開化黨은 그 형성시기를 甲申政變이 발생하기 5년전인 1879년으로 잡는 실증적 연구가 있는데(李光麟, 開化黨研究, 일조각, 1973; 姜在彦, 朝鮮의 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본문은 開化黨의 形成시기를 이들 연구에 따른다. 다만 본문은 하나의 정치적 결사로서 특정한 의미를 가질 때는 '開化黨'이라 지칭하고, 그외에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던 세력과 인물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開化派'라는 말로 쓴다.

81) 李光麟, 前掲書, p. 4; 金義煥, 前掲書, pp. 157-158.

82) 朴日根, 前掲書, p. 153.

83) 姜在彦, 韓國近代思想史研究(서울:한밭출판사, 1982), p. 27.

84) 姜在彦, 前掲書, p. 70.

최초의 만남이었다.⁸⁵⁾

李東仁이 東京에 머물고 있을 때 마침 朝鮮이 派遣한 第2次修信使 金宏集 一行은 1880年 8月 11일에 東京에 도착하여 淺草別院에 거거하게 되었다. 이 때 金修信使는 日本이 主張하는 日本使節의 駐京, 仁川開港 및 稅制改革등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있던 차 우연히 李東仁을 相逢하게 되었다. 李東仁을 만난 金宏集은 그의 능숙한 日本語와 높은 識見, 日本과 世界의 情勢에 대한 깊은 洞察, 朝鮮의 將來에 대한 見解를 듣고 매우 놀랐으며, 그가 朝日 현안문제를 비롯한 向後 朝鮮과 西歐諸國과의 관계를 능숙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金修信使는 9월말 李東仁을 대동하여 귀국하였다. 李東仁은 곧 閔泳翊에게 소개되었고, 閔派翊도 그를 몹시 좋아하여 자기 집에 居處를 마련해 주면서 高宗에게 謁見시켜 日本의 國政과 世界各國의 形勢를 上奏하게 하였다.⁸⁶⁾ 李東仁의 國際情勢를 전망하는 탁월한 眼目에 매혹된 高宗은 그를 특별히 총애하게 되었고 또한 王宮에 出入하는 것까지 허락함으로써 僧侶의 신분으로서 將來의 朝鮮政府의 外交政策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한편 高宗을 謁見한 金宏集 修信使는 그가 직접 관찰한 日本의 情勢 및 滯日時 수차례에 걸쳐 面談한 당시 駐日本清國公使 何如璋과 黃遵憲參贊과의 면담 내용등을 進言하였다. 특히 그는 國王에게 美國이 公正하고 民主體制이며 國家가 富強할 뿐만 아니라, 信義가 있음을 力說하면서, 何公使가 “美國과의 通商은 有益無損하니 이러한 萬世一時的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 朝鮮은 美國과 條約을 締結하여 有事時에 대비해야 된다”⁸⁷⁾고 말을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修信使는 井上馨 日本外務卿과 작별시 그가 러시아의 戰艦 16隻이 朝鮮國境內 블라디보스톡에 停泊하고 있음을 알려 주면서 만약 러시아가 清國侵略을 준비하기 위하여 同軍艦의 不凍港을 구하고자 한다면 朝鮮의 港口가 그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西方國家가 재차 修好를 요청하여 온다면 朝鮮이 友好的 태도로써 이에 응하여 그들과 條約을 締結함으로써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 사실마저 國王에게 上奏하였던 것이다.⁸⁸⁾

金修信使의 이러한 進言을 들은 高宗은 朝鮮을 中心으로 한 격동하는 東北亞情勢의 변화, 특히 清露兩國의 伊犁紛爭 결과에 따른 러시아의 南下進出政策이 國家安全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高宗은 러시아의 軍事的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美國과의 修好通商條約이 절대로 필요하며 이것만이 위기에 치한 國家를 救濟할 수 있는 自救策임을 인식하게 되었다.⁸⁹⁾

이러한 重大한 시점에서 高宗은 閔泳翊의 소개로 알게 된 李東仁이야말로 國家가 필요로 하는 책임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密使로 선발하여 이미 「朝鮮策略」을 작성해 건네준 何如璋公使와 修好交涉을 전개할 수 있도록 派日하였다. 그는 開化黨의 支援下에 11월 4일 同僚 卓挺植과 함께 釜山을 경유하지 않고 비밀히 元山港에서 渡日하여 11월 19일 何如璋公使와 相面한 후, 「朝鮮策略」에 대한 朝鮮政府內의 重臣들의 반응과 政府의 입장, 會議錄등을 전달하고 朝鮮政府의 修好決定方針을 通告하였다.⁹⁰⁾

이 때 朝鮮政府의 態度는 何如璋公使의 ‘親中·結日·聯美’策과는 달리 ‘聯美·親中·反日’

85) 上揭書, p. 79; 李光麟, 前揭書, p. 96.

86) 文一平, 湖岩全集 第3卷 (서울:一成堂書店, 1948), p. 38.

87) 國史編纂委員會, 「修信使記錄」, pp. 171-181 및 金宏集 「金宏集遺稿」, 7月 21日 往大清公署, pp. 317-310.

88) 金宏集, 上揭書, 8月初 3日 往大清公署, pp. 323-324.

89) 朴日根, 前揭書, p. 154.

90) 台灣, 中研, 前揭書, 李東仁密使交朝鮮政府會議策略, 1880. 11. 16.

策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李鴻章이 構想하고 있던 ‘備露抗日’ 策과 一致하는 것이었다. 高宗政府가 ‘朝鮮策略’ 中 ‘親中聯美策’ 에는 찬성하나 ‘結日’ 策에는 반대했다는 것은 江華島條約 이후 日本이 開港地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적 폭리를 취함으로써 朝鮮政府와 國民의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何·黃兩인이 朝鮮에서 日本勢力을 끌어늘여 防露策을 주장한데 반하여 李鴻章은 美國勢力만으로 日露兩國을 견제하여 淸國의 기존 이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備露抗日’ 의 策略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李鴻章의 對朝外交政策은 근본적으로 高宗의 排日親美의 外交政策과 一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李東仁密使의 배후에는 開化黨人士들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高宗의 秘密外交를 지원하고 있었다.⁹¹⁾ 이는 그가 渡日하기전 元山에서 체류시 2차에 걸쳐 그의 친구로부터 “……國王께서 현재 前修信使 金宏集에게 御命을 내려 何如璋公使에게 편지를 써서 美國側에 전과 같이 修好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金宏集의 書翰이 언제 도착될지 알 수 없다”는 편지와 “近日 開催된 政府重臣들간의 「朝鮮策略」을 둘러싸고 토의한 會議記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로써 알 수 있다.⁹²⁾

한편 高宗政府가 李東仁을 日本에 파견키로 한 즈음 天津에서 李鴻章은 兵器製造學習·彈藥·火藥·軍機등을 수리하는 機器購入 및 練兵問題등을 협의하고자 도착한 齊奏官 卞元圭를 상대로 美國과의 修好通商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때 그는 이미 슈펠트(Shufeldt) 美國特使를 天津에 招請하여 그에게 朝美條約締結의 成事에 대한 언질을 주었으나 卞元圭로부터 朝鮮政府가 日本의 朝美條約 중재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⁹³⁾

李東仁 密使를 面談하고 그로부터 高宗이 결정한 修好策을 전해 들은 何如璋은 本國政府의 總理衙門에 朝鮮半島의 戰略的 가치는 유럽에서의 터어키와 같은 性格을 갖기 때문에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朝鮮과 西洋諸國과의 通商을 주도하여 실질적인 宗主國의 權利를 행사함으로써 朝鮮外交에 干涉하도록 主張하는 이른바 ‘朝鮮外交處理方案’을 전달하였다.⁹⁴⁾

이와는 달리 李鴻章은 이미 李裕元과 卞元圭를 통하여 러시아와 日本의 侵略勢力을 견제하기 위하여 朝鮮이 自主的으로 美國과의 通商條約을 締結하도록 力說한 바 있기 때문에 總理衙門에 “朝鮮과 他國과의 條約締結은 淸國이 代表를 파견하여 主導하지 않고 단지 기회를 봐서 側面에서 助力하겠다고”⁹⁵⁾ 報告하였던 것이다.

總理衙門이 李鴻章의 朝美修好斡旋方法과 그의 募後懲慝에 同意한 것은 朝鮮政府가 淸國의 영향력을 끌어늘여 朝鮮國內의 修好反對勢力을 악화시키려고 한 의도에 共感하여, 여기에 淸國이 介入하기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淸國은 朝鮮의 國事를 干涉해 본 前例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第三國 朝·美修好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⁹⁶⁾ 이와같이 從來 淸國은 朝鮮의 外交를 干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李鴻章은 1881年 1月 13日(陰 12月 2日)

91) 朴日根, 韓美修好條約에서 본 美·中의 對韓政策: 高宗의 秘密外交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論文集 第 24輯, 人文·社會科學篇(1977. 12), pp. 44-45.

92) 中央研究院, 前掲書, 光緒6年 10月 16日, 出使大臣何如璋等兩稱, pp. 437-439.

93) 朴日根, 前掲書, pp. 156-157 및 中央研究院, 前掲書, 接見朝鮮齊奏官卞元圭 筆談問答草, 1880. 9. 22.

94) 中國外交部, 朝鮮檔案, 何如璋主持朝鮮外交議, 1880. 11. 18.

95) 中央研究院, 前掲書, 李鴻章函履總署, 1880. 12. 20.

96) 王彥威編, 前掲書, pp. 5-6.

何如璋公使에게 “朝鮮外交를 掌握하는 것은 淸國에 有益하나, 淸國이 대신 처리하면 他國에 의심과 憂慮를 사게 될 수 있으니 表面上의 활동을 중지하고 오직 秘密히 진행시키도록 하라 고”⁹⁷⁾ 打電하였다. 그가 何如璋公使의 外交政策에 反對한 것은 그의 外交路線이 現實을 간과한 「親日的」이라는 사실외에도 何公使의 親日外交는 또다른 日本의 朝鮮內外事에 대한 干涉을 招來한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何公使가 本國政府에 建議한 ‘朝鮮外交處理方案’의 내용을 보면, 첫째, 朝鮮은 아시아의 要衝에 자리잡고 있어 지리적 위치상 中國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朝鮮이 망한다면 淸國에게 미칠 後患은 더 말할 필요도 없으며, 아시아에서의 朝鮮의 위치는 마치 유럽의 터키와 같아 各國에게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이다.

둘째, 大清國은 일찍 朝鮮을 平定한 후 明나라를 토벌하였으며 그 후 200년간 朝鮮은 事大를 禮로 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북쪽에 막강한 러시아가 黑龍江과 豆滿江까지 진출하여 있는 形勢인 바 朝鮮이 망하면 淸國도 쇠퇴할 것이다. 그러므로 駐劄辦事大臣을 두어 蒙古·西藏의 경우처럼 國內政治와 外國과의 條約을 모두 淸國이 主管하면 外國이 감히 침략할 수 없어 上策이나, 이럴 형편이 안되므로 次善策으로 朝鮮으로 하여금 美, 獨, 佛, 英과 通商을 하게 하여 世界萬邦과 서로 均衡을 이루도록 한다.

셋째, 西洋의 屬國을 보면 그들 政治를 自主로 하는 東洋의 朝貢國과 다르다. 西洋通例를 보면 屬國과 半主權國은 條約締結時 모두 宗主國이 主管하고 또 屬國이 第3國과 戰爭時는 宗主國이 關與한다.

넷째, 오늘날 朝鮮이 러시아의 併合威脅으로부터 벗어나자면 부득이 他國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朝鮮으로 하여금 스스로 條約을 締結하도록 하면 他國도 朝鮮을 自主國으로 인정하여 淸國의 屬國이란 명칭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朝廷은 會議을 열어 外交利害에 밝은 노련한 官吏를 朝鮮에 派遣, 條約을 대신 主管해야 한다.

다섯째, 總理衙門은 皇帝의 諭旨를 받들어 朝鮮國王이 他國과 條約을 체결하도록 명령하고 이 條約序文에 ‘朝鮮國은 淸國政府의 명령을 받아 某國과 條約을 체결하기 원한다’고 聲明하도록 해야 한다⁹⁸⁾는 다섯가지의 요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와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2年餘만에 李鴻章의 斡旋自請과 高宗의 自律의인 秘密外交 努力 끝에 1882年 5月 22日 朝鮮代表 申憲과 美使節 슈펠트간에 14款의 內容으로 구성된 이른바 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朝鮮은 名實共히 歐美國家中 美國으로부터 國際社會의 一員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1880年初 東北亞情勢는 南에서는 日本이 琉球를 併合하여 淸國은 日本의 膨脹主義를 경계하였고, 北에서는 伊犁地域의 國際紛爭으로 淸國과 러시아의 關係가 惡化되어 러시아가 장차 朝鮮, 滿洲 및 新疆에까지 侵入하지 않을까 라는 危機感이 팽배하여 淸國內에서도 對러시아警戒論이 대두되었다. 이에 李鴻章도 러시아에 대한 警戒論에 共感하여 러시아의 國境侵入과 日本의 經濟的 野心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朝鮮의 西歐列強과의 通商이 防露策이 될 수 있음을 認識하여 朝鮮으로 하여금 서둘러 歐美列強에 門戶를 開放하도록 勸告하였다.

이러한 狀況하에 駐東京 英國公使 파크스(H. Parkes)도 1875年の 朝日江華島條約 締結 이래로 이미 러시아의 朝鮮進出을 두려워 하여 日本의 朝鮮에 대한 戰爭을 반대하였다. 그는 朝日江華島條約을 계기로 하여 英國의 淸日에 대한 商業上의 利益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朝鮮의 開國策만이 유일한 對策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러시아의 永興灣占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97) 故宮博物院編, 前掲書, p. 31.

98) 中央研究院, 前掲書, 10月 16日 出使大臣何如璋等函稱, pp. 437-439.

數次에 걸쳐 本國政府에 朝鮮의 開國을 강력히 건의하였다.⁹⁹⁾

그러나 英國政府는 朝鮮과의 貿易量이 너무 적어 兵力을 動員하면서까지 모험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파크스가 건의한 軍艦을 帶同한 朝鮮訪問使節團의 제의 마저 거부하여 朝鮮 開國에 대한 關心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당시 英國外務省의 立場은 朝鮮에서 失政과 貧困으로 通商의 展望이 흐리고 英國이 日本을 통해 英國産 鐵製品을 朝鮮에 수출하여 사실상 間接貿易去來를 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구대여 淸日를 비롯한 러시아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가면서까지 朝鮮과 通商條約을 체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¹⁰⁰⁾

뿐만 아니라 政治的 觀點에서도 英國은 佛獨 兩國이 朝鮮과 協商交涉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러시아 또한 朝鮮에 대하여 어떤 措置를 취할 기미가 없는 이상, 英國도 獨自의 行動을 취할 아무런 理由가 없다고 생각하였다.¹⁰¹⁾

이러한 英國政府의 確固한 對朝鮮外交方針에도 불구하고 파크스公使가 再三 朝鮮과의 關係 開設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은 1878年 9월에 濟州道에 遭難당한 自國船員들이 住民들에 의하여 구조된 事件이 발생한 직후였다. 이 때 駐長崎 英領事館書記 폴(Paull)을 現場에 派遣하여 自國船員과 貨物을 무사히 救出할 수 있었다.¹⁰²⁾ 이에 파크스公使는 이 사건을 계기로 日本政府와 交渉하여 日人通譯과 駐釜山日本領事館에 대한 紹介狀을 얻어 英國公館의 사토우(Satow)書記를 現地로 보내 그들 船員에 대한 朝鮮人의 人道主義에 감사를 표하고 직접 朝鮮政府와 通商條約交涉을 試圖하였다.¹⁰³⁾

그러나 日本과의 外交通路를 관장하고 있던 東萊府使는 中央政府의 許可나 通告없이 面談이 困難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토우의 通商條約交涉을 반대하였다. 만약 그들이 계속 고집한다면 40日 以後에나 回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대답함에 사토우 一行은 다시금 朝鮮의 國法이 朝英兩國間 關係改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¹⁰⁴⁾

그런데 앞의 절에서 記述한 바와같이 1878年 12月 30日 파크스가 美政府의 朝鮮開國 결의 情報을 入手한 前後로, 日本政府는 花房公使를 다시 朝鮮에 派遣하여 江華島條約 規定에 따라 아직 未解決問題인 駐在使節團, 2개 港口의 開港 및 課稅問題등을 토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花房은 4月 15日 釜山港에 도착한 후 東萊府使와 協商하고자 하였으나 失敗하고 말았다. 그는 同年 10月 10日 兵力 2個小隊를 帶同하여 다시 懸案문제를 解決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당시 마침 李鴻章이 李裕元에게 歐美諸國과의 修好通商을 強力히 권고하는 書信을 전달하였고, 또한 開化黨이 적극 지원한 李東仁이 日本에 密派된데다, 第2次 修信使 金宏集마저 何公使와 英參事를 만나 朝鮮과 列強과의 修好를 논의하고 있던 때였다. 공교롭게도 朝鮮開國의 열렬한 主張자인 파크스는 일시 귀국하고 그의 업무를 代理한¹⁰⁵⁾ 케네디 代理公使는 그의 上司

99) 朴日根, 英國의 韓國開國政策에 대한 小考, 釜山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論文選 第10號(1983), pp.1-3.

100) F. C. Jones, op. cit., pp.156-164.

101) Ibid., pp.164-168.

102) 英外務省, Foreign Office Correspondence, No. Ⅲ, Parkes to Salisbury, November, 11th, 1878.

103) Foreign Office Correspondence(이하 F. O. C.) Great Britain, No.117, Same to Same, November 25th, 1878.

104) F. O. C, No.127, No.136, No.139, Same to Same, Yedo, Nov. 25th, 1878, No.27th, 1878 and Dec. 2nd, 1878.

105) 應瀬靜子, 日淸戰爭前のイギリス極東政策の考察: 朝鮮問題を中心として, 國際政治(東京: 日本國際政治學會編, 1974), pp.127-131.

파크스 公使의 견해와는 달리 本國政府에 朝鮮開國은 英國 혼자보다 美, 佛, 伊三國의 協助에 便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報告하여 英國政府가 이들 三國과 협력하여 朝鮮의 開國 方針을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觀望政策’ (Policy of Watchful Waiting)을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그는 同 報告書에서 비로소 朝鮮에는 지금 開國을 열망하는 적극적이고, 총명한 青年一黨(開化黨)이 存在하며 朝鮮政府가 外國의 開國要求로 인해 난처하게 된 政府의 정책에 一大改革을 실현하고자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과 東京에서의 李東仁의 外交活躍狀況 및 金宏集修信使와의 接觸을 상세히 報告했던 것이다.¹⁰⁶⁾

英國外務省 資料에 의하면, 7月 19日에야 비로소 사토우가 李東仁을 케네디에게 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李東仁으로부터 朝鮮의 政府組織, 政府改革資源開發, 開化黨形成, 對淸·對日關係, 對佛, 對美, 對러 및 對英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⁰⁷⁾ 특히 이때 李東仁은 자신이 休대한 李鴻章과 李裕元간의 往復書翰內容을 朝鮮開國을 위한 淸國側의 증거자료로서 주었는데, 사토우가 이를 번역하여 케네디에게 제출함으로써 朝鮮國內에도 이미 開國論議가 은밀히 거론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사토우와 李東仁간의 密約交涉을 통해 그는 李東仁에게 러시아의 朝鮮侵略의 威脅性을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英國政府는 1881年 朝鮮開國問題의 新局面에 관한 케네디의 報告를 접수한 뒤 폰스포트 (Pauncefoot)外務次官補는 파크스와 협의하여 同年 1月 11日 그로하여금 政府에 朝鮮開國 展望에 대한 覺書를 제출토록 하였다. 同 覺書의 內容은 ① 朝鮮의 國王과 政府가 朝日條約과 같은 條約을 歐洲各國과 체결하는데 매우 滿足하며, ② 列強國과 共同步調보다는 英國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속하고 편리하며, ③ 폰스포트가 제의한 것처럼 윌스(Willes)提督에게 금년 봄에 朝鮮開國의 修好條約締結 의무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파크스가 직접 朝鮮으로 가든지, ④ 이러한 任務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토우에게 豫備使節任務를 부여하여 事前에 朝鮮으로 파견하는 것이 좋겠고, ⑤ 이러한 英國使節派遣은 淸國政府를 통해 朝鮮에 報告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⁸⁾는 意見이었다. 이 때 兩人은 淸國政府가 朝英條約체결을 지지할 것인가 또는 英國使節은 淸國政府의 斡旋에 依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英國의 朝鮮開國政策은 러시아의 南下를 저지하는 동시에 淸·日과의 獨占的 貿易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政策이었으므로 英國의 立場은 가능한 한 朝鮮을 둘러싼 淸·日·러三國間的 勢力均衡이 파괴되지 않도록 現狀維持하는 것이 그들의 極東外交政策이었다. 때문에 朝鮮의 開國政策도 그들의 이러한 極東政策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고려될 수 밖에 없었다. 파크스나 케네디같은 一線外交官들은 러시아의 朝鮮侵略, 領土占領, 혹은 朝鮮을 둘러싼 淸러間의 紛爭이나 충돌 그리고 朝鮮海岸에서의 自國商船이나 商人의 遭難과 같은 狀況的 變化가 발생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돌발적인 사건발생에 대한 사태수습책의 일환으로 朝鮮과의 開國案을 강력히 건의하였던 것이다.

朝鮮政府가 시종 先王의 閉關自守策과 國法등을 이유로 이들 西方國家에게 直接協商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英國外交官들은 부득이 淸國이나 日本을 통해 自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보호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은 朝鮮開國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英國政府가 朝·淸兩國間的 政治的

106) F.O.C. No.45, Kennedy to Salisbury June, 12th, 1880.

107) F.O.C. No. 131, Memorandum on Korean Politics 및 Confidential, No.114, Kennedy to Granville July, 1st, 1880.

108) F.O.C. No.41, Confidential, Note on Parkes.

關係를 의식하여 淸國의 協助에 의해 朝鮮과의 關係를 모색했지만 케네디는 이러한 政府政策에 開化僧 李東仁과 같은 人士를 통해 朝鮮과 접촉하려는 매우 現實的 方法을 취했고 파크스는 獨自的 武力이나 巨文島占領과 같은 武力을 수반한 強力한 方法을 동원해서라도 朝鮮開國案을 고집했다는 사실이다.

V. 李東仁의 被殺과 開化事大兩黨의 修好主導權 奪取

英國政府는 케네디나 파크스와 같은 一線外交官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淸國의 主權을 통해 朝鮮의 開國을 決定하였는데 이것은 곧 英國政府가 朝淸兩國間의 傳統的 宗屬關係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英國의 態度는 朝鮮이 淸國의 屬國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自主的 外交權行使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英國政府가 그들 外交官들의 開國案을 受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朝鮮開國問題를 그들의 世界政策과 極東外交政策이라는 視角에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한 朝鮮開國政策의 결정은 極東에서 러시아의 朝鮮領土占領의 위기나 淸日兩國에 대한 그들의 商業的 利害가 侵害당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고 또한 朝鮮의 失政과 貧困狀態가 改善되어 通商을 할 만큼 展望이 밝지 않는 한, 朝鮮開國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英國政府의 基本立場이자 政策이었다.¹⁰⁹⁾

이와 같은 自國의 利害得失을 감안한 시각에서 英國은 佛 伊共同 朝鮮開國政策을 고려하게 되었고, 淸, 日, 러 3國間의 紛爭이나 갈등이 야기될 때만 적극적으로 朝鮮開國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朝鮮開國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래 淸國의 對朝不干涉政策이 淸日 및 淸露紛爭을 계기로 干涉政策으로의 政策的 變化를 단행하여 淸國이 朝鮮에서의 政治的 優位權을 회복하고자 日露兩國에 대해 ‘聯美’나 때로는 ‘聯英’策으로써 牽制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淸國의 傳統的 外交政策인 ‘以夷制夷’의 自國中心의 外交政策이었다.

高宗政府가 아직 美國과의 修好를 決定하지 못한 狀態에서 李東仁의 聯英 制露政策이 나온 배경은 첫째, 英國이 美國보다는 國력이 強하고 둘째, 英國은 佛·美(1886年 丙寅洋擾와 1871年 辛未洋擾)의 경우처럼 朝鮮과 武力衝突에 의한 敵對的 怨恨관계가 없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英國과의 修好가 朝鮮에 유리하다는 매우 現實的인 開國政策을 主張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事實은 李東仁이 高宗의 密使로 선발되기 전, 朝美修好를 強力히 권유한 何如璋公使와 黃遵憲參事를 만나 美國과의 修好만을 설득당한 第2次 修信使 金宏集과는 달리, 비밀히 駐日英公館의 사토우書記官을 만나 英國이 다른 西歐列強에 앞서 朝鮮과의 修好를 서둘도록 要請한 그의 行動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李東仁의 聯英制露 구상과는 달리, 金宏集修信事를 통해 何如璋과 黃遵憲의 「朝鮮策略」의 內容을 보고받은 高宗은 何公使의 권고에 따라 自救策의 일환으로 美國과의 修好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高宗은 이러한 重大事를 政府重臣御前會議에서 討議하도록 하였는데 同會議는 「朝鮮策略」에 실린 內容중 ‘親中聯美’政策에는 찬성하나 ‘結日’政策에는 반대한다는 要旨로 結論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李東仁은 高宗의 密使로 선발되어, 再次 何如璋公使를 만나 朝鮮政府의 修好方針을 전하기 앞서, 다시 비밀히 사토우書記官을 접견하여 英國이 朝鮮과의 修好를 조속히 서둘도록 재촉하였던 것이다.

109) 朴日根, 英國의 朝鮮開國政策과 淸·日·朝 三國의 反應, 前掲書, p.136.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때 英政府는 駐日英國公館을 통하지 않고 淸國政府를 통해 朝鮮과의 交涉을 시도하기로 決定한 이후였다. 英國外務省으로 부터 淸國政府가 진심으로 朝·英條約을 支援할 것인지 그리고 英使節團이 淸國의 斡旋에 依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打診해 보도록 訓令 받은 웨이드 駐北京公使는 이미 淸國政府와 朝鮮開國問題를 협의하고 있었다는¹¹⁰⁾ 事實로 미루어 보아, 英國政府는 朝鮮이 淸國의 屬國이라는 전제하에 淸國의 協助로 朝鮮開國을 추진한다는 外交方針을 이미 決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뜻밖에 淸國政府의 斡旋을 통해 朝鮮과의 通商交涉을 전개한다는 英國政府의 訓令을 받은 웨이드公使는 朝英修好를 서둘러 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가 朝鮮을 점령할 有利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하여 淸·日間에 紛爭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獨逸公使 브란트(Brandt)도 러시아를 격려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¹¹¹⁾ 더욱이 웨이드는 淸國政府가 오랫동안 朝鮮에 대해 條約締結을 권고하여 왔으며, 이 때 마침 淸國의 朝英修好勸告에 대한 朝鮮側의 回答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朝鮮과의 修好通商條約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李鴻章이 朝鮮에 美國과의 通商을 強力히 주장한 書翰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朝鮮측으로부터 소식이 없는 事實만을 확인한 뒤, 이를 本國政府에 전하면서 이러한 狀況에서 淸國政府가 朝·英條約 締結交涉에 協力할 것인가에 대해서 確實한 淸國의 태도를 알 수 없다고 報告하였다.

이러한 狀況을 미루어 볼 때 만약 英政府가 淸國의 斡旋에 의한 朝鮮開國이라는 政策轉換을 결정하지 않고 駐日公使代理 케네디나 파크스公使의 要請대로 신속히 主權을 임명하여 朝鮮과 通商交涉의 措置를 취했거나, 또는 李東仁이 事大派의 政治의 음모에 의해 極秘에 謀殺되지만 않았더라면 朝·英關係改善이나 外交關係는 李東仁과 사도우書記官의 協力으로 美國에 앞서 自主적으로 成立될 수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李東仁의 被殺에 대해서는 여러 學說이 있으나 가장 說得力 있게 이 사건을 규명한 것은 北洋大臣 李鴻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朝貢使를 통해 修好事를 淸國과 論議해 오던 事大派의 巨物인 統理衙門大臣 李最應(大院君 李昞應의 實兄)이 1881년 3월 開化派로부터 朝·英修好交涉의 主導權을 奪取하기 위하여 高宗의 密使로 活躍하고 있던 李東仁을 除去한¹¹²⁾ 事大派의 계획적인 政治의陰謀라는 學說이다.

이러한 論據는 첫째, 李容肅의 귀국을 계기로 李最應은 李鴻章의 草案을 접수하였고, 이때 그는 李容肅으로부터 李鴻章이 金宏集의 親日外交행각을 비난한 사실을 전해들었다. 뿐만 아니라 李最應은 統理機務衙門의 總理大臣을 兼職하여 修好事를 主掌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國王을 비롯한 開化派가 修好交涉을 주도하여 왔으므로, 장차 자신의 主導權下에 이를 추진하려면 지금까지 이 交涉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李東仁密使의 除去가 불가피했을 것이며, 동시에 이 交涉事에 처음부터 관련된 金宏集修信使의 역할을 弱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李最應은 領議政으로서 聯美策을 주장하였고 高宗이 開化僧 李東仁을 密使로 派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李鴻章에게 주는 私信中에서 何如璋公使와 접촉한 李東仁의 외교활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統理衙門의 總理에 임명되기 전인 데도 李鴻章에게 修好事를 의논하고 淸國이 各國과 체결한 通常條約의 副本을 요청하였다.

셋째, 高宗은 金宏集修信使보다 오히려 李東仁을 더 信任하여 그를 密使로 선정하였기 때문

110) F.O.C. Nos 179 and 180, very Confidential, pp.119-80.

111) Telegram ; Wade to Granville, Jan. 14th, 1881.

112) 朴日根, 前揭書, pp.172-173.

에 이 과정에서 金宏集은 李東仁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있을 수 있었고, 金宏集이 李東仁을 질시하고 있는 兩人間의 不和關係를¹¹³⁾ 李最應이 이용한다면 만약 李가 謀殺당하더라도 그 嫌疑를 金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다.

넷째, 李東仁은 高宗의 密使로서 何公使와의 修好交涉任務를 완료한 후에도 직접 朝美通商條約을 草案할 정도로 外交事務처리에 능하였기 때문에 國王의 절대적 信任을 얻어 統理機務衙門內 參謀官이란 職責에 임명되어, 사실상 그가 있는 한 事大派人士들은 장차의 通商交涉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同交涉의 主導權을 장악하기가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다섯째, 李東仁은 國王의 御命으로 日本武備狀況을 시찰하기 위해 3月 8日 渡日할 예정이었는데, 이같은 重責을 맡은 人物을 除去한다는 것은 적어도 現職位에서 權力組織力이나 혹은 行政力을 비밀히 동원할 수 있는 執權派內 李最應 같은 巨物級이 관련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여섯째, 李最應은 李容肅을 통해 받은 李鴻章의 朝美通商條約草案과 ‘先後早晚之策’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자신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보고, 이 기회에 李東仁이 주도한 通商交涉權과 日本을 통한 兵器購入 문제등을 저지하지 않으면 國王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는 開化派로부터 外交交涉의 主導權을 영구히 掌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 6가지 이유에 두고 있다.

이같은 李東仁의 行方不明은 總理이며 親淸事大派巨物인 李最應이 朝美修好通商交涉의 主導權을 奪取하기 위하여 그의 事大派 下部組織을 동원하여 李東仁을 除去한 政治的 暗殺事件이며, 그의 被殺은 開化·事大兩派間에 修好交涉의 外交方法을 둘러싸고 相互反目과 암투를 전개함으로써 빚어진 권력투쟁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反證할 만한 學說이 없는 한 매우 說得力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修好策에 의한 開國의 重大事를 目前에 두고 朝鮮과 美國과의 修好에 의한 開國이란 重大事을 決定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重要한 시기에 그나마 高宗이 信任하는 당시 國際情勢와 外交交涉事에 밝은 開化僧 李東仁같은 先覺者를 黨派의 利害關係로 인해 잃었다는 것은 국가적 次元에서도 크나큰 손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VI. 結 論

朝鮮이 江華島修好條約의 체결로 後發帝國主義國家인 日本에 開港(二開國)한 이후부터 淸日戰爭(1894)이 발생하기까지의 朝鮮에 대한 淸國의 政策樹立과 決定者는 李鴻章이었다. 그는 朝鮮이 계속 鎮國策을 고수 할 수만은 없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朝鮮의 安保를 위협하는 日本과 러시아의 朝鮮進出은 淸國의 安保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以夷制夷’ 政策으로써 朝鮮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즉 그것은 日露라는 하나의 ‘夷’에 대항할 만한 또다른 ‘夷’으로써 歐美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다.

이와같이 그가 朝鮮으로 하여금 歐美列強과 修好通商하게 함으로써 이들 세력을 끌어들이어 朝鮮에서 勢力均衡(Balance of Power)을 형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日本의 세력확장을 저지시켜 宗主國으로서 淸國의 우월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자신의 對朝鮮 基本政策이었다. 이러한 李鴻章의 對朝鮮政策은 壬午軍亂을 계기로 傳統的 不干涉政策이 干涉政策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壬午軍亂前 즉 日本과 러시아의 세력이 아직

113) 李光麟, 前掲書, pp. 105-110.

구체적으로 朝鮮에 침투하기 이전까지는 淸國이 朝鮮의 內政과 外交에 간여하지 않고 朝鮮의 자발적인 事大의 禮에 만족하고 있다가, 壬午軍亂後 外勢(日露)가 朝鮮에 침투할 기미를 보이자 종래의 소극적 불간섭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朝鮮의 內政 外交에 干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歐美列強의 힘을 빌어 日露兩國과 勢力均衡을 이루고자 한 것이 그 전과 다른 점이다. 이는 淸國 한나라의 독점적 우월권 주장에서 어느 정도 후퇴했음을 의미하고 또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李鴻章은 朝鮮과 美國과의 通商條約을 斡旋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때, 당시 朝鮮의 外交는 타율적 일면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본문의 논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朝鮮내부에서도 淸國의 이러한 의도를 눈치채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나름대로의 일련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壬午軍亂이후 淸國이 전에없이 朝鮮의 內政 外交를 간섭하려 들자 國王高宗과 외교고문 필렌도르프 그리고 開化堂 지도자들은 朝鮮의 主權固守와 自主獨立을 강구하는 多邊外交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다분히 自律的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外交路線이었다. 본문에서 이미 논한 바와같이 自律的 外交의 추진은 高宗의 신임을 얻고 있던 李東仁의 활동을 시발로 하며, 그 계승은 金玉均 朴泳孝등을 중심으로한 開化堂 人士들에 의한 일련의 內政改革으로 이어져 오다가 甲申政變(1884)의 실패로 대전환의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본문의 범위는 甲申政變의 전개와 역사적 평가는 논외로 한다.

이로써 볼때, 朝鮮後期の 중요한 한 시기에 분명히 자주적인 입장에서선 인물들과 그들에 의해 추진된 自律的 多邊外交活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외교는 주변열강들의 이해관계와 ‘일본의 앞잡이’ 들에 의한 대외의존적 외교로 평가되어 타율적 외교에 그쳤다는 편협되고 왜곡된 종래의 학설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李東仁의 對英國접촉과 通商條約체결시도의 실패는 英國이 그들의 世界戰略上 한 부분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았던 朝鮮觀, 그리고 淸國의 宗主權主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巨文島占領을 합법화시키고자한 英淸간의 일종의 흥정(Bargain)의 산물이지만, 高宗의 후견과 李東仁密使의 활약등 朝鮮側의 자주적 노력이 없었던 바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의 현실은 항상 자국중심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두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논리는 100여년전의 朝鮮말기나 20세기 후반의 지금이나 불변하는 國際政治의 냉엄한 현실적 논리이며 약소국은 그것의 희생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점이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자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역사의 귀감이라 하겠다.

參考文獻

I. 國內書籍

가. 國內著書

- 姜東鎮, 日本近代史(서울 : 한길사, 1986).
- 高炳翊譯, 穆麟德의 手記(서울 : 震檀學會, 1963).
- 金景昌, 東洋外交史(서울 : 集文堂, 1989).
- 金圭炳譯, H. N. Allen著, 韓國近代外交史代表(서울 : 國會圖書館, 1966).
-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서울 : 檀大出版部, 1984).
- 金義煥, 韓國近代史 研究論集(서울 : 서울 大學校出版部, 1983).
- 文一平, 湖岩全集 第3卷(서울 : 一成堂書店, 1948).
- 朴口根, 美國의 開國政策과 韓美外交關係(서울 : 一潮閣, 1989).
- _____, 近代韓美外交史(서울 : 博友社, 1968. 3).
- 朴宗根, 清日戰爭과 朝鮮(서울 : 一潮閣, 1989).
-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서울 : 檀大出版部, 1987).
- 申福龍, 姜鎬燦譯, 데니의 생애와 활동, 韓末外交問題制度의 한 研究(서울 : 평민사, 1988).
- 李光麟, 韓國史講座, 近代篇(서울 : 一潮閣, 1983).
- _____, 開化黨 研究(서울 : 一潮閣, 1973).
- 李瑄根, 袁世凱와 朝鮮, 韓國近代史論(서울 : 太學社, 1982).
- _____, 韓國史, 最近世篇(서울 : 震檀學會, 1961).
- 楊尙弦, 韓國近代政治史研究(서울 : 사계절, 1985).
- 韓永涉編著, 古筠 金玉均 正傳(서울 : 電鑛産業社, 1984).
- 蔡中默, 韓國外交史(서울 : 螢雪出版社, 1986).
- 崔文衡, 列強의 東아시아政策(서울 : 一潮閣, 1979).
- 韓國政治外交史學會, 韓佛外交史, 1886-1986(서울 : 평민사, 1987).
- 甲申政變研究(서울 : 평민사, 1985), 韓國政治外交史學會 韓國北方關係의 政治外交史의 再照
明(서울 : 평민사, 1990), 韓國政治外交史學會 論叢 第六輯韓國獨立運動과 列強關係(서울 :
평민사, 1985), 韓國政治外交學會 韓露關係 100年史(서울 : 韓國史 研究協議會, 1984),
韓國史研究協議會 韓國研究院 圖書館所藏, Microfilm, Despatches from U.S.
Minister to Japa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6, 1880.
- 韓國史研究會編, 清日戰爭과 韓日關係(서울 : 一潮閣, 1990).

1. 國外書籍

가. 日 文

藤村直生, 日清戰爭(東京: 岩派新書, 1974).

姜在彦, 朝鮮の開化思想(東京: 岩派書店, 1980).

膨澤周, 明治初期 日韓清關係の研究(東京: 原書房, 昭和 44年).

應瀨靜子, 日清戰爭前の イギリス極東政策の考察: 朝鮮問題を中心として, 國際政治(東京: 日本國際政治學會編, 1874).

나. 英 文

Denett Tyler, American in Eastern Asia, A Study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 with reference to China, and Korea in the 19th Century(New York: The Macmillan Co. 1963).

Jones, F.C.,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Departmental of History, Harvard University, 1935).

Kim Key-Hiuk,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Los Angels, London: 1980).

Lee Yur-Bok, West Goes East: Paul Georg von M llendorff and Great Power Imperialism in Late Yi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_____,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866-1887 (N.Y: Humanities Press, 1970).

Lensen, George Alexander,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n and Japan (1895-1904), The Observation of Sir Ernest Mason Satow, British Minister Plenipotentiary to Japan(1895-1900) and china(1900-1906), The Diplomatic Press (Tallahassee: Florida Rose Printing Co., 1966).

Paterson Thomas G., Clifford, J. Garry, and Hagan, Kenneth., American Foreign Policy/A History (D.C. Heath and Company, 1977).

Park Il-Keun(ed.),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Seoul: Shimmundang, 1982).

_____, ed., Anglo-American and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釜山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1984).

2. 國內論文

姜在彦, 甲申政變의 挫折과 金玉均, 思想과 政策 Vol. 1, No.4(서울: 京郷新聞社, 1984).

高炳翊, 穆麟德의 履歷 背景, 필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 (서울: 正民社, 1983).

- 金基赫, 近代初期에 있어서 朝·靑·日·關係의 展開, 思想과 政策, Vol. 1, No.4(서울 : 京鄉新聞社, 1984).
- 金源模, 淸日戰爭前後 美國의 對極東政策이 日本의 韓國侵略에 미친 影響, 韓國史研究會編 淸日戰爭과 韓日關係(서울 : 一潮閣 1985).
- 金元洙, 淸日戰爭 및 三國交涉과 러시아의 對韓政策, 韓露關係 100年史, 서울(1984).
- 盧啓鉉, Möllendorff가 韓國外交에 미친 影響, 比較文化研究創刊號, 漢陽大學校 比較文化研究所 (1982).
- 林明德, 甲申政變 以後中國의 對韓政策, 思想과 政策 Vol. 1, No.4(서울 : 京鄉新聞社, 1984).
- 민병하, 穆麟德과 韓國傳統社會,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서울 : 京鄉新聞社, 1984).
- 朴日根, 中·美兩國의 對朝鮮外交政策에 대한 小考, 釜山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論文選 第3號 (1979. 5).
- _____, 韓佛修交樹立過程에 대한 研究, 韓佛外交史 1886-1986, 韓佛修交100周年記念 國際學術會議 論業(서울 : 평민사, 1987).
- _____, 英國의 韓國開國政策에 대한 小考, 釜山政治學會論叢 第2輯(1989. 10).
- _____, 李鴻章의 對朝政策 - 英艦의 巨文島占領事件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社會科學大學論叢, 第1卷 第1號(1982. 6).
- _____, 初期英國의 對朝鮮外交政策研究, 李鴻章의 屬邦政策을 中心으로, 釜山學校 中國問題研究所, 論文選 第10號(1983. 9).
- 朴英宰, 淸日戰爭과 日本外交, 歷史學報 第53.54合輯(1972).
- 朴泰根, 러시아의 東방전략과 수교이전의 한·러교섭, 韓露關係 100年史 (서울 : 韓國史研究協議會, 1984. 4).
- 宋二朗, 日帝의 韓國植民地 統治方式에 관한 研究(慶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 申基碩, 朝鮮問題에 관한 露淸外交關係 : 朝露密約事件을 中心으로, 學術院論文集, 第1輯 (1959).
- 李宜根, 大院君時代의 對歐美關係研究, 新興大學論文集 V, 1 (1958).
- 李鉉淙, 俄館播遷, 韓國史研究協議會編, 韓露關係 100年史, 서울, (1984).
- 李泰永, Möllendorff와 韓末開化期의 行政改革,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 (서울 : 正民社, 1983).
- 任桂淳, 韓露密約과 淸의 對立,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 (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崔文衡, 列強의 對韓政策과 韓末의 情況 ; 특히 1882年-1894年の 美, 英, 露의 態度를 中心으로(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_____, 淸日開戰의 動因과 經緯, 歷史學報 第99, 100合輯(1983).
- _____, 러시아의 太平洋 進出企圖와 英日의 對應, 歷史學報 第91輯(1981).
- 崔鍾庫, 韓獨修交 100周年의 軍事的 意義 : 韓末의 初期交涉史를 中心으로, 軍史第7號, 國防部戰史 編纂委員會(1983).

II. 外國文書 및 個人文集

- U.S. Department of Navy, Thompson Secretary of Navy to Shufeldt, Navy Department, October 27th, 1878 in Cruise of the "Ticonderoga", Part 1, U. S. Navy Department Archives.
- National Archives, Diplomacy, Despaches China, Bingham to Evarts, September 14, 1880.
- _____, No.21, Shufeldt to Thompson At Sea, Aug 30, 1880.
- _____, Shufeldt to Holcombe, Tientsin, 16 Dec.
- _____, No.187, Angell to Blaine, Peking, July 16. 1881.
- _____, Diplomacy Instruction, No.948 : James Blaine to Angell, May 9. 1881.
- _____, Shufeldt to Blaine, Tientsin, July 1. 1881.
- _____, Recored of the Department of State, Diplomatic, Instru-
ctions, China, No.9 : Fish to Low, April 20, 1870.
- U.S. Department of State, Evarts to Thompson, November 9th, 1878, No.3 of Instructions of Commodore Shufeldt in "Cruise of the Ticonderoga", Part 1.
- _____,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894. Denby to Grasham, July 1894.